

#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 현황

■ 손가녕\*

## 1. 서 론

스웨덴의 경제구조는 한국과 유사한 대기업<sup>1)</sup> 중심의 제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sup>2)</sup>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이성준·김중화, 2014). 반면 스웨덴은 글로벌 혁신지수<sup>3)</sup>에서 글로벌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스타트업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에 처음으로 스타트업 경제사절단을 동행 하면서, 북유럽 창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월의 ‘핀란드의 창업 생태계 현황’에 이어, 선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스타트업 강국으로 도약한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의 장점을 정리함으로써 벤치마킹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전략연구실 연구원, (043)531-4142, rotersonne@kisdi.re.kr

- 1) 스웨덴은 에릭슨, 볼보, H&M, 이케아, 일렉트로룩스 등 대기업들이 중심이 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 2017년 World bank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44.0%, 스웨덴 47.0%로 두 나라 모두 수출 중심 경제구조임.
- 3) 글로벌혁신지수(The Global Innovation Index, 이하 GII)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가 코넬대학과 유럽경영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2019년에는 129개 국가의 혁신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은 11, 스웨덴은 2위를 기록. 스웨덴은 2016년 2위, 2017년 2위, 2018년 3위로 꾸준히 글로벌 혁신지수 2~3위를 기록하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2. 본론

### 가. 스웨덴 창업 생태계 특징

스웨덴의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유럽 주요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대다수의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은 한국과 비슷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정책 시행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발돋움하였다.

Startup Genome이 매년 발표하는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에서 2017년에 스톡홀름은 시장도달범위(Market Reach)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8위)를 받으며 14위를 기록하며, 첫 TOP 20에 진입(퍼포먼스 17위, 펀딩 20위, Talent 18위, 스타트업 경험 12위)에 진입하였다.

한 국가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TEA 지수는 18~64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창업 42개월 이하의 스타트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창업단계에 있는 인구 비중으로 정의된다. 스웨덴의 TEA 지수는 2016년 7.58%로 유럽 내 1위를 기록한 이후, 2017년 7.29%로 4위, 2018년 6.82%로 9위로 다소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스웨덴의 신규 창업기업 수는 7만여 개로 스웨덴 전체 등록기업의 7%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6만 8천여 개로 집계되는 등 창업기업 수의 감소추세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웨덴은 VC 투자와 엑시트(EXIT)가 활발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2016년 북유럽으로 투자된 총 금액의 54%가 스톡홀름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50% 이상의 투자액 유치로 유럽 내 4위 기록하였다. M&A를 통한 글로벌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7년 유럽의 총 엑시트 610건 중 121건(19.8%)이 스웨덴에서 발생,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증가율로 유럽에서 엑시트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부상하였다(2위 독일 112건(18.4%), 3위 영국 77건(12.6%), 4위 프랑스 45건(7.4%).

우수한 창업 환경 속에 Spotify, Skype, King, Mojang, Klarna, Izettle의 6개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탄생하였고, 유니콘의 시장가치는 영국에 이

은 유럽 내 2위 규모이다.

Spotify는 세계 최고의 스트리밍앱 서비스기업으로 '06년 스톡홀름 최초의 유니콘이 되었고, Skype, King(Candy Crush Saga 모바일게임 개발), Mojang(컴퓨터게임 Minecraft 개발), Klarna(전자상거래 지불서비스), IZettle이 뒤를 이었다.

〈표 1〉 스웨덴의 6개 유니콘

유니콘 기업명	설명
Spotify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06년 설립, 1억8천만 유저
Skype	인터넷 전화, 85억 달러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11)
King	모바일게임 '캔디 크러쉬 사가', '12년 Facebook에 출시, 하루 93백만 유저, 59억 달러에 Activision Blizzard에 매각('16)
Mojang	어드벤처게임 '마인크래프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25억 달러에 매각('14)
Klarna	전자상거래 지불서비스, 3,500만 유저, 18개국 진출
Izettle	핀테크, 24억 달러에 미 Paypal에 매각('18.5월)

자료: KOTRA(2018),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 재구성

## 나. 스웨덴 창업정책 및 인프라 투자

### (1) VINNOVA(기술혁신청)

VINNOVA(Verket for innovationssystem, 기술혁신청)는 2001년 1월 설립된 기업 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 산하의 창업 및 혁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및 공공부문에 매년 약 30억 크로나(4,0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투자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한다. 2017년 상반기에만 117개의 혁신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최근 15년간 지원한 프로젝트는 약 2,500개로 집계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된 혁신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돕는 'Vinnvaxt(Regional Growth through Dynamic Innovation Systems)'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2019년 동안 총 7,800만 크로나(약 95억원)를 투입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 주요 액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정책으로는 스웨덴 내 우수 창업기업 보육센터 중 하나인 읍살라 혁신센터(Uppsala Innovation Centre)가 있다. 읍살라 혁신센터는 1999년 읍살라시, 읍살라대학, 스웨덴 농과대학의 공동출자와 읍살라지역의 중소기업들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

읍살라 혁신센터는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단계부터 창업 설립 초기 과장, 제품 생산과정 등 세 가지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초기부터 내수시장이 아닌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경영 전반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읍살라 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기업의 90% 이상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창업기업의 세금과 직원급여 등으로 1년간 사회에 환원하는 투자회수지수(ROI, return on investment)가 투자금액의 11배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KOTRA, 2018).

〈표 2〉 스웨덴 읍살라 혁신센터 지원 단계 개요

구분	지원 대상 및 내용
비즈니스 스타트업: 1단계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대상) 혁신창업을 시작하는 기업가 및 팀,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li> <li>• (지원 내용) 아이디어가 단기간 내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지침, 네트워크 등을 제공</li> </ul>
비즈니스 설립 :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대상)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생기업 등</li> <li>• (지원 내용) 비즈니스 개발, 재정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li> </ul>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 3단계(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대상) 스케일업을 원하는 기업, 신규 사업 또는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혁신 기업</li> <li>• (지원 내용) 1:1 코칭 프로그램으로 상담, 재정지원, 비즈니스 네트워크 연결지원 등 중요 자원에 대한 연결 제공</li> </ul>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19), “스웨덴, 핀란드의 혁신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재구성

이 밖에도 스웨덴 정부는 산·학·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장기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클러스터로는 ‘시스템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가 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1988년 설립된 IT클러스터로 입주기업 972개사, 32,500여명이 근무하며 이중 ICT 기업 종사자는 18,108명, 클러스터에 거주하는 주민은 12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 유럽 최대 ICT 클러스터로 평가받고 있으며 입주기업 중 연매출 100백만 크로나(US\$ 11.6백만)이상 기업은 50개사, R&D센터 36개소, 8,000여명의 학생, 1,100여명의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다(KOTRA, 2019).

스톡홀름대학,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의 ICT 관련 학과를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로 이전함으로써, 대학에서 창출되는 신기술 및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센터(국방과학연구소, 극초단파연구소, 컴퓨터공학연구소, 시스템개발연구소, IT 연구소 등 다수의 국책연구소 입주)와 기관, ICT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들<sup>4)</sup>이 입주해 있다.

## 나. 스웨덴의 창업지원 제도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VINNOVA, ALMI(국영 벤처캐피탈 기업), Industry Fund 등에 초기 창업자금이나 R&D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스타트업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제도도 있는데, 스타트업에게는 설립연도의 손실분을 차기 영업실적에 적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초기 세금부담의 완화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인큐베이터와 파트너사인 민간 VC로부터의 자금조달도 가능해 스웨덴은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한 편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에서 혁신기술 창업이 활발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을 연구자 개인에 귀속시키는 스웨덴의 지적재산권법을 꼽는다. 스웨덴 지적재산권법에서는 교사 예외조항(Teachers Exemption)을 만들어 대학 교수나 연구원이 발명한 특허의 소유권을 교수와 연구자에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 성과물에 대해 광범위한 권리를 보유하고 보상

4)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대표기업은 스웨덴 정보통신업체인 에릭슨(Ericsson)이며 입주기업 중 글로벌 선도기업으로는 IBM, HEWLETT-PACKARD, SUN MICROSYSTEMS, ORACLE, Microsoft, CISCO 등 있다(KOTRA, 2018).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 발명자의 특허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대학교수의 산업체 겸직과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창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다.

### 3. 결 어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는 민간과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지금의 스타트업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구축한 다수의 혁신 클러스터는 스웨덴이 현재의 선도적인 혁신 역량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클러스터에 대기업 및 성공기업들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스웨덴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창업 생태계 내에 성공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은 스웨덴과 유사한 대기업의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기업 및 중소 스타트업, 산·학·연·관간의 협력을 통해 선순환 구조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이성준·김중화(2014), “스웨덴의 창업 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EU 연구》, pp. 127~159.  
 중소기업연구원(2019), “스웨덴·핀란드의 혁신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19-12호.  
 KOTRA(2018),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 《Global Market Report》 18-029.  
 KOTRA(2019), 『해외 혁신클러스터 현황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KOTRA자료 19-047.